지상법석

영화 끄달리면 헛된 삶"

"禪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뇌하며 사는 일상이야말로 수행처입니다"

들이 '마음의 법(心法)'을 이어왔습니다. 흔히 오종칠가풍(五宗七家風) 이라고 부르는 이 중국선종의 흐름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신라말엽의 구산선문(九山禪門)은 바로 이 '마음'에 대한 참구(參究)를 구현한 실례였습니다. 이같은 전통을 이은 우리나라의 선종은 보조국사 지눌의 시대에 이르러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돈오점수(頓悟漸修)의 획기적인 가풍이 수립된 것이죠. 송광사를 중심으로 한 16국사가 이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우리 불교로 봐서는 역사적인 질곡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선종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왔습니다. 특히 서산대사의 출현은 꺼져가는 선맥의 법등(法燈)을 다시 일으켜 세운 쾌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선'이란 말은 산스크리트의 드흐야나(Dhyana)라는 말의 음역입니다. 선나(禪那)라고 썼던 것을 후에 나(那)가 생략되고 선(禪)이라고만 쓰이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정려(靜慮)' '자기제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신의 자기집중'내지는 '내면에의 침잠'이란 의미를 띠고 있지요.

사람에게는 다소의 외부지향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일종의 컴플렉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생각이 확대되면 언제나 진리는 바깥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 하늘에 뜬 무지개빛 이상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절의 외벽(外壁)에는 소를 탄 목동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심우도(尋牛圖)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이가 소를 타고 앉은 채 소를 찾아 헤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진 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련한 자여, 소를 타고서 소를 찾는구나."

내 마음의 진실과 그윽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바깥만을 응시하는 현대인에게 경종이 될 수 있는 고사가 아니겠습니까.

선은 이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되찾으려는 수행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 험난한 세파(世波)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 내 삶이 좌우된다는 생각은 지나친 자기 기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은 이 내면을 증득(證得)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상속의 자기는 언제나 6근(六根)의 작용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6근이란 결코 본래적인 자아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6근의 감각기관에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6근을 통괄하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유식(唯識)불교에서는 이를 제8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고 부릅니다. 선가에서는 이를 '마음'이라고 총칭합니다. 우리들 육신은 이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본래적인 마음을 회복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감각과 욕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진실한 대도(大道)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때의 나는 결코 별개의 '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각적 자신이 극복되고 원래의 자신을 회복했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지요.

현대를 자아상실(自我喪失)의 시대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선'으로부터 많은 시사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기 위한 노력, 껍데기의 내가 아니라 진실한 내가 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들 삶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 '선'이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거룩한 경지는 아닙니다. 홍진(紅塵) 속에 놓여진 이 일상이야말로 바로 선이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들어 부쩍 전통적인 것,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사이 지나치게 우리들의 의식구조나 생활패턴이 서구적으로 변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어디까지나 한국인일 따름입니다. 개나리가 노랗고 진달래가 붉듯이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한국인의 마음이 바로 지금은 잊혀져가는 '선의 마음'입니다. 자연에 대한 외경,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 그리고 인고(忍苦) 등을 한국인들은 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선의 다음을 비교적 잘 보존하고 있는 곳이 바로 사찰입니다.

새벽녘에 도량석 소리는 한결 청아(淸雅)하게 들립니다. 무명(無明)을 깨우는 죽비의 질책이기도 하고 끓어오르는 번뇌의 불길을 잠재우는 다정한 법음이기도 하지요.

오늘도 진실한 나를 찾기위한 정진에는 쉼이 없습니다. 삭발한 스님들의 이마 사이로 또다시 햇살이 내려 비치고, 그들의 어깨 위로는 대장부의 기개가 역력하지요. 정적을 깨는 장군죽비의 소리만이 고즈넉한 산사에 울려 퍼집니다.

어느덧 뉘엿뉘엿 지는 해를 보며 우리는 또다시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지는 해처럼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 안주하는 내 마음의 주인공을 찾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무의미한 삶이겠습니까.

"삶을 어떤 존재가 좌우한다는 생각은 지나친 자기기만 입니다 내면을 증득하는 참선공부로 주인공인 '나'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21세기라는 미지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긍정적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이들은 다가오는 시대가 태평양시대일 것이며, 우리 한국은 그 주역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반면 부정적 입장에 선 이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국이 더이상 발전을 이루기는 어렵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의 미래가 바로 우리들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신대로 '心淨卽佛土淨(마음이 맑으니 불국토가 청정하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과 실천이 올바를 때 우리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 있다는 뜻이지요.

미래의 한국은 윤리·도덕의 회복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산업사회는 불교의 윤리로부터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가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야수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근원적인 자아를 확립하고 이 덧없는 실존 속에서 영원을 추구하는 삶의 질적 고양이 필요합니다.

정보화사회로 접어든 오늘 교통과 통신은 나날이 발전해 이제 지구촌이란 말이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본 고뇌인 삶과 죽음의 번민은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지요. 불교의 윤리는 그런 면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우리 곁에 다가섭니다. 참다운 인간의 길,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찾아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 불교는 한국의 문화와 역사, 철학을 지탱해 온 핵심이었습니다. 불교문화의 부흥은 곧 한국 정신의 회복임을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시대는 명백히 다원종교의 시대입니다. 어느 특정한 종교가 국교로서의 권위를 지닐 수가 없지요. 이제 종교인들은 서로의 영역을 넓히려는 발상보다는 서로의 공통분모를 확인하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대사회에서의 종교의 역할과 미래의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고대사회의 종교인은 사회를 이끄는 선두주자였지만 이제 그 몫은 과학자들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종교에서 남은 영역은 도덕적 완성, 윤리의 청정성이 된 것입니다.

불교는 수도(修道)를 생명처럼 삼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 윤리적 귀의처로서 불교는 언제나 존재의 당위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가치있는 삶을 영위하는 근원으로서 우리 곁에 살아있습니다.

'마음의 근원' 찾는 노력은 욕망껍질 벗는 과정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51

양 형 진

진화의 의미

근대의 서구 지성사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인 두 사건을 든다면 그것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다윈의 진화론일 것이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과 인간이 신의 형상을 본따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이 두 이론 모두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계 내에서의 인간의 지위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또한 인간의 지위와 관련된 그 이전의 세계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그 어느 이론이나 그 이전의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이론이 그 초기 단계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 이론보다 더 우월하다거나 경험적으로 더 적합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사실이며, 19세기 이전이라면 창조설을 굳이 부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1650년 아르마의 대주교 어셔가 구약을 근거로 하여 창조는 기원전 4004년에 있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나 라이트푸트 박사가 그 정확한 시간은 10월 23일 오전 9시라고 했던 것 보다는, 진화론에 대한 반대의 역사가 심지어는 오늘날까지 지속된다는 것이 보다 심각하게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적어도 진화론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과학자라면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이라고 인정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과학적 증거는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분자생물학의 발달과 더불어 더욱 공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꽤 많은 것 같다. 원숭이가 우리와 친척이라는 것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우리가 인상(人相)에 사로 잡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그릇된 견해이다. 나와 남을 분별하여 내가 너보다 낫다는 아상(我相)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듯이, 내가 인간이라 하여 다른 모든 중생과 구별하여 우월해지고자 하는 인상에 집착한다면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진화론은 가르쳐 주고 있다.

진화론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맞는다면 동물원의 원숭이는 언제쯤 사람이 되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은 진화론을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질문이다. 진화론이 말하는 것은 지금의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원숭이와 지금의 사람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선가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원숭이와 사람은 마치 나무 위의 두 가지에 비유될 수 있다. 나무가 아무리 자라더라도 하나의 가지가 다른 가지로 변해갈 수는 없다. 각각의 가지는 각자의 나름대로 자랄 뿐이다. 그렇지만 나무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만나는 곳을 찾아낼 수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원숭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지금의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다. 현재의 원숭이와 현재의 사람은 각자 자신의 진화의 길을 따라 간다. 그래서 그들이 미래의 어느 시간에 같은 종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거로 거꾸로 올라가 본다면 그들의 공통의 조상이 살았던 시점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 진화론의 이야기이다.

원숭이가 언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관점에는 모든 동물의 우열이 가려지며 열등한 동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등한 동물로 변해간다는 관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분별심에 근거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그릇된 견해일 뿐이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두 생물들은 35억년의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등하다. 인간만이 아니라 파리까지도 그 모든 생물은 그들 나름대로 지금 이 순간 최상의 상태, 즉 진화의 최고 단계에 있다. 그러므로 35억년의 전역사가 담겨져 있는 생명체 하나 하나는 그 어떤 예외도 없이 참으로 장엄한 것이다. 일체가 평등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모두 공통의 조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일체가 동근이다.

이렇듯 일체의 생명은 장엄한 것이요, 일체의 생명은 평등한 것이요, 일체는 또한 동근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생명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다.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생물 우열관계 분석은 그릇된 분별심 人相집착 버리면 모든 생명 평등관계

황금빛 도자기 불상 지금 선택하십시오

순금(24K)으로 옷을 입혔습니다

(7치:23.1cm) 일천불 조성

삼천불 조성

(5치:17.5cm) 일만불 조성

(1자:33cm)

장인의 혼과 얼을 담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 1380℃에서 구워낸 도자기불상 입니다-

새로 개발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빚어 도자기로 만든 불상입니다. 도자기로 만든 불상을 조성해 볼 계획이 없으신지요.

전화주시면 직접 부처님을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주)국보도자기, 국보기획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53, 신안 B/D 301호

공장 :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장심리

전화 : (02)723~4260/1, FAX : (02)723~4260

대표이사 권 영 천 합장